

## 百濟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 신 형 식 (申澄植)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百濟史 研究의 方向
- II. 百濟史 研究의 現況
- III. 百濟史 研究의 課題

### I. 百濟史 研究의 方向

百濟史 研究는 新羅史(남한)나 高句麗史(북한)의 연구에 압도되어 최근까지도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현존 문헌의 한계와 考古 美術史의 발굴위주로 백제사 연구는 편향적인 연구 성과를 남기게 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은 우선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해

서 이룩되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백제사에 대한 연구는 신라사나 고구려사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에 의해 먼저 시도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연구에 이용한 일본문헌(『日本書紀』)은 『三國史記』와 내용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일본문헌 위주의 역사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처음부터 歪曲된 百濟史를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왜곡된 백제연구를 진행한 것은 백제연구가 순수한 학술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인데, 그들의 이러한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소위 任那日本府說이다. 다시 말해서 百濟史라는 것은 '任那日本府의 지배하에 他律의으로 유지된 歷史'라는 것인데, 이러한 歪曲된 백제사를 꾸며내기 위해서 그들은 백제 初期史를 부정하기까지 이르렀다. 『三國史記』의 내용 대신 『日本書紀』의 기록을 취신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三國史記』에 기록된 백제 초기 역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백제 초기사에 대한 이러한 불신은 津田左右吉・今西龍으로부터 시작되어<sup>1)</sup> 末松保和를 거쳐<sup>2)</sup> 井上 秀雄 및 鬼頭清明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일관된 논지로 계승되었다<sup>3)</sup>. 일본인들이 이렇게 조곡된 百濟像을 만들어 낸 것은 「日本書紀」와 같은 일본문헌의 적극적인 해석과 반대로 「三國史記」 초기 기록에 대한否定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백제사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잘못된 百濟史像은 점차 바로잡혀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金元龍의 경우에는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三國史記」 초기 기록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함으로써<sup>4)</sup> 백제 초기사 연구에 새로운 轉機를 마련함과 동시에 일본인 학자들의 百濟史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警鐘을 울렸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公州에서 武寧王陵이 발굴되고, 거기에서 출토된 誌石의 내용이 「三國史記」의 기록과 합치됨으로써 「三國史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결

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sup>5)</sup>. 千寬宇와 李鍾旭의 초기 백제사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百濟史像의 정립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sup>6)</sup>.

이러한 사실은 문헌사학의 입장에서만 제기된 것이 아니다. 고고학의 입장에서조차 백제 초기 기록을 한강유역의 고고학 자료와 결부시킴으로써 백제의 건국 시기 및 초기의 영역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졌다<sup>7)</sup>.

이렇게 문헌사학과 고고학적인 입장에서 「三國史記」 초기 기록에 대한 신빙성이 입증됨에 따라 종래에 일본인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되었던 任那日本府에 대한 새로운 견해도 제시되었다. 任那日本府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은 千寬宇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日本書紀」와 「三國史記」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사료비판을 통해 任那日本府를 결국 伽耶地方에 과견된 백제의 軍司令部와 같은 것으로 보고, 이것이 6세기경 晉州일대에 설치되었

1) ① 津田左右吉, “百濟に關する日本書紀の記載”,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8, 1921.

② 今西龍, 百濟史研究, 1934.

2)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1949.

3) ① 井上秀雄, 任那日本府と倭, 1978.

② 鬼頭清明, “任那日本府の檢討”, 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 1976.

4) 金元龍, “三國時代 開始에 關한 一考察”, 東亞文化 7, 1967.

5) 申澄植, “三國史記의 編纂과 研究成果”, 三國史記研究, 一潮閣, 1981.

6) ①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下), 韓國學報 3, 1976.

② 李鍾旭, 百濟 初期史 研究史料의 性格, 百濟研究 17, 忠南大百濟研究所, 1986.

③ \_\_\_\_\_, 百濟의 國家形成, 大邱史學 11, 1976.

④ \_\_\_\_\_, 百濟王國의 成長, 大邱史學 12・13, 1977.

7) ① 崔夢龍・權五榮, “考古學的 資料를 통해 본 백제 초기의 領域考察”, 千寬宇先生 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1985.

② 崔夢龍, “漢城時代 百濟의 都邑地와 領域”, 震檀學報 60, 1985.

다고 보았다<sup>8)</sup>. 金鉉球 역시 任那日本府를 백제가 久禮山 부근에 설치한 기관으로 보고, 그곳에 파견된 官人이 大和政權의 氏姓을 갖고 있던 일본계 백제관료이기 때문에 日本府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sup>9)</sup>.

최근에 가야의 故地에서 발굴되고 있는 풍부한 고고학적 자료는 가야문화의 실체를 분명히 보여줌과 동시에 문헌사학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고 있어 日帝皇國史觀의 관념적 무기였던 任那日本府의 虛構性은 점점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되자 국내 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발맞춰 일본인 학자 스스로의 연구 방향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井上秀雄은 스스로 任那日本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고<sup>10)</sup>, 鬼頭清明도 任那日本府에 官人을 파견한 주체가 大和政權이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뒤를 이어 請田正幸, 奥田尙, 山尾幸久, 大山誠一, 鈴木靖民, 鈴木英夫 등도 任那日本府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외세의 지배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다.

한편, 일본인 학자들은 「三國史記」의 초기 기록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미술사적인 접근으로 백제문화에 대한 많은 불교사 미술사 연구성과를 나타냈다. 즉, 일본인 학자들은 일찍부터 백제유적 발굴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일제시대부터 발굴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백제문화의 先進性 내지 優秀性을 곧바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今西龍의 「百濟史研究」(近澤書店, 1934) 이후 坂元義種의 「百濟史研究」(書房, 1978)와 같은 문헌연구보다는 輕部慈恩의 「百濟美術」(東洋美術出刊, 1946)과 「百濟遺蹟の研究」(吉川弘文館, 1971), 田村圓澄 黃壽永의 「百濟文化と飛鳥文化」(吉川弘文館, 1978), 그리고 東潮 田中俊明의 「韓國の 古代遺跡」(百濟 伽耶篇, 中央公論社, 1989) 등에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西谷正, 岡内三眞, 武末純一, 小田富士雄 등도 백제문화의 기원과 전개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를 제시하였다<sup>11)</sup>. 그리고 백제토기<sup>12)</sup>와 백제불상<sup>13)</sup>에 대해서도 종전과 다른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었고, 안정적인 연대를 갖는 標識的인 유물을 중심으로

8) 千寛宇, 復元加耶史(下), 文學과 知性 9-1, 1977.

9) 金鉉球, 大和政權의 對外關係研究, 1985.

10) 井上秀雄, 任那日本府의 再檢討, 吉川弘文館, 1978.

11) 西谷正, “百濟前期古墳의 形成過程”, 百濟文化 13, 1980.  
岡内三眞, “百濟武寧王陵と南朝墓의 比較研究”, 百濟研究 11, 1980.  
武末純一, “百濟初期의 古墳”, 鏡山猛先生古稀論叢, 1980.  
小田富士雄, “百濟古墳의 系譜”, 馬韓·百濟文化 7, 1984.

12) 藤澤一夫, “百濟의 土器”, 世界陶磁全集 13, 1955.  
小田富士雄, “西日本發見百濟系土器”, 百濟文化 10, 1977.  
\_\_\_\_\_, “四世紀의 百濟土器”, 藤澤一夫先生古稀論叢, 1982.

백제토기 편년체계가 새롭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들 연구는 결국 日本古墳, 佛像, 土器 등에 있어서 백제문화와의 관련에 주목함으로써 일본 고대 문화에 있어서 백제의 역할을 부각시킨 것이다<sup>13)</sup>.

한편, 한국의 경우도 백제사 연구는 연구자의 부족과 연구의 편향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1971년 武寧王陵의 발굴로 새로운 轉機를 맞게 되었다. 백제고분 연구에 있어서 武寧王陵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며<sup>14)</sup>, 아울러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삼국시대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의 편년을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백제문화의 조사와 연구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한 계기가 되었다. 더구나 公州大學校의 百濟文化研究所(「百濟文化」), 忠南大學校의 百濟研究所(「百濟研究」), 그리고 圓光大學校의 馬韓·百濟文化研究所(「馬韓·百濟文化」)의 경쟁적인 연구와 국제학술 활동은 백제사 연구의 커다란 촉진제가 되었다. 또한 百濟文化開發研究院의 재정적 지원과 연구·발굴사업은 낙후된 백제사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백제지역의 많은 발굴과 자료 개발은 신라·고구려

사 연구에 비하여 많은 연구축적을 가능케 한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연구소는 정기적인 국제학술회의와 연구자의 발굴지원을 통해 백제의 역사와 그 문화의 성격을 국제적 안목에서 추구하고 있음은 높이 평가된다.

이러한 백제사 연구의 활성화에 촉진제가 된 것은 洪思俊, 金元龍, 金永培 등 선구적인 노력과 黃壽永, 秦弘燮, 尹武炳 등의 뒷받침으로 고고·미술사 분야의 성과가 이룩되면서 부터이다. 이어 鄭永鎬, 金正基, 金三龍, 全榮來 등에 의한 연구시야의 확대와 安承周, 成周鐸, 朴容煥, 姜仁求, 金煥泰, 洪植 등의 전문적인 천착으로 백제사는 그 연구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趙由典, 崔夢龍, 車勇杰, 朴永福, 李南奭 등 새로운 전문연구자들은 문헌과 고고학을 접목시켜 백제사를 정립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百濟文化開發研究院의 지원과 湖南, 湖西地方의 활발한 발굴로 백제사 연구에 폭을 넓히게 된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시기에 이룩된 성과는 金基雄의 「百濟의 古墳」(1976), 金三龍의 「益山文化圈의 研究」(1977),

13) 大西修也, “百濟石佛坐像考”, 佛教藝術 107, 1976.

久野健, “百濟佛像の服制とその源流”, 百濟研究 특집호, 1982.

14) 申澄植, “百濟史研究의 成果와 展望”, 百濟史 19, 梨大出版部, 1992.

15) 齊藤忠, “百濟武寧王を中心とする古墳群の編年の序列とその被葬者に關する一試考”, 朝鮮學報 81, 1971.

口隆康, “武寧王陵出土鏡と七字鏡”, 史林 55-4, 1972.

大谷光男, “百濟武寧王陵·同王妃의 墓誌에 보이는 曆法에 대하여”, 考古美術 119, 1973.

岡内三眞, “百濟武寧王陵と南朝墓の比較研究”, 百濟研究 11, 1980.

尹武炳, “武寧王陵 및 宋山里 6號墳의 塼築구조에 대한 考察”, 百濟研究 5, 1974.

安承周, “百濟古墳의 研究”, 百濟文化 7·8합집, 1975.

姜仁求의 「百濟古墳研究」(1977), 金東旭의 「百濟의 服飾」(1985), 成周鐸의 「百濟城址研究」(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5), 金煥泰의 「百濟佛教思想研究」(1986), 張慶浩의 「百濟寺刹建築」(1991), 그리고 尹武炳의 「百濟考古學研究」(1992) 등이다. 그 외 대표적인 발굴 보고서로서는 「武寧王陵」(문화재관리국, 1973), 「夢村土城」(서울대박물관, 1988), 「公山城」(안승주, 1982), 「定林寺」(윤무병, 1981), 「彌勒寺址發掘報告書」I・II(문화재연구소, 1989・1996)와 「百濟初期 文化의 考古學的 再照明」(한국고고학회, 1987) 등이 있다. 그 외 百濟文化開發研究院의 「百濟瓦塼圖錄」(1983)과 「百濟土器圖錄」(1984) 등이 있어 이 방면의 연구에 도움이 된다. 특히 尹武炳의 「百濟考古學研究」는 漢江流域, 武寧王陵, 百濟의 都城에 대한 발굴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姜仁求의 「百濟古墳研究」는 백제고분의 起源과, 特徵을 심층적으로 재조명한 역저이다.

그러나 최근에 백제사 연구에 활력소가 된 것은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문헌사학의 성과를 정리한 단행본의 출간이다. 盧重國의 「百濟政治史研究」(一潮閣, 1988)는 국가형성 과정과 지배세력의 변천 및 통치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백제 정치사의 시대구분을 꾀한 것이다. 이어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6 (1995)는 백제의 성립과 발전·변천, 대외관계 및 정치·사회·경제구조를 밝힌 것으로 權五榮, 梁起錫, 金周成, 俞元載, 盧重國, 權兌遠 등이 집필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小壯世代가 백제사연구를 주도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최근에 李基東의 「百濟史研究」(一潮閣, 1996)는 저자의 백제관련 논문집으로 백제사의 특성, 馬韓의 백제로의 이행과정, 정치·사회, 대외관계 등을 집중으로 다루어 백제사 연구의 지평을 넓혀주었다. 특히 盧重國과 李基東의 저서는 백제의 성장과정이나, 권력구조 및 대외관계의 해명에 있어서 새로운 계기를 열어준 역작으로 평가된다. 한편 俞元載의 「中國正史百濟傳研究」(學研文化社, 1993)는 중국문헌에 나타난 百濟相을 총정리하여 백제사의 모습을 부각시킨 것으로 이 방면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백제사의 대중화를 위한 첫시도는 崔夢龍, 沈正輔의 「百濟史의 理解」(學研文化社, 1991)이다. 이 책은 李基東, 崔夢龍, 李鍾旭, 盧明鎬, 崔秉鉉, 車勇杰, 朴永福, 梁起錫, 沈正輔, 俞元載 등 백제사 관계 전문가들의 논문을 묶어 백제사를 총람케 한 것이다. 그 후 俞元載(編)의 「百濟歷史와 文化」(學研文化社, 1996)는 백제사의 이해를 위해 주로 앞선 필자들에게 건국과정, 정치, 사회, 대외관계, 문화, 부흥운동 등을 중심으로 백제사를 쉽게 풀어 백제를 보다 알기 쉽게 우리 곁으로 오게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고구려사나 신라사와는 달리 기존 연구성과를 재정리하여 개설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노력은 고구려사나 신라사연구자들과 달리 제한된 연구성과를 대중화 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한편 필자 역시 「百濟史」(梨大出版部, 1992)에서 백제사의 성격, 「三國史記」의 문제, 시대구분과 발

전과정, 권력구조 및 대외관계, 그리고 문화 등을 정리하여 백제가 고구려나 신라에 비해 일찍 성장되었으며, 왕성한 西海支配를 통해 그 세력권을 해외로 확대한 나라였음을 밝힌 바 있다. 여기서 필자는 한일 양국의 연구성과를 비교한 후, 백제 건국과 성장의 배경이 된 한강유역의 자연조건과 역사적 배경을 찾아 보았다. 이어 중국과 한국 문헌(「三國史記」)의 내용을 비교한 후, 백제의 시대 구분과 통치구조의 특징을 신라와 비교함으로써 백제사의 성격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문헌사학의 연구는 斗溪의 개척과 李基白의 치밀한 고증방법을 거쳐 李基東, 李鍾旭, 盧重國 등으로 이어졌다. 그 후 梁起錫, 俞元載, 李道學 등으로 연결되어 주로 학위논문으로 그 성과가 나타났다.

백제사 연구에 대한 학위취득은 盧重國의 「百濟政治史研究」(서울대, 1987) 이후, 梁起錫의 「百濟專制王權 成立過程 研究」(檀國大, 1990), 金周成의 「百濟 泗沘時代 政治史 研究」(全南大, 1990), 李道學의 「百濟集權國家 形成過程 研究」(漢陽大, 1991), 俞元載의 「中國正史 百濟傳研究」(忠南大, 1993), 朴燦圭의 「百濟의 馬韓征服過程 研究」(檀國大, 1995), 李南奭의 「百濟石室墓研究」(高麗大, 1995)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梁起錫은 熊津時代와 泗沘時代의 권력구조나 왕권의 존재 형태를 심층 분석하여 백제 專制王權의 특징을 밝혀 주었으며, 俞元載는 중국문헌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백제사 연구의 안목을 국제적으로 넓혀 주었다. 또한 李道學은 「日本書紀」의 내용을 분석하여 「三國史記」내

용을 보완하는 한편, 백제의 건국과 발전과정에 鹽鐵論과 같은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李南奭은 安承周를 이어 백제고고학을 발전시키는 책임을 지고 있다.

## II. 百濟史 研究의 現況

이와 같이 백제사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1년 武寧王陵의 발굴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기존 고고학·미술사 위주의 연구 성과에 힘입어 古墳, 土器, 城郭, 寺址, 佛像 등의 연구 외에 言語, 歌謠, 佛教, 彌勒思想 등 문화면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문헌의 한계를 극복하고 백제사를 복원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백제사 연구는 처음부터 문헌의 한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고고학 연구 성과와 문헌과의 연계문제도 남아 있지만, 그 중에서도 目支國과 初期 都城의 位置, 王位系譜, 繼承과 王妃族, 8大 貴族의 性格, 百濟의 遼西進出, 中央과 地方官制, 百濟와 大和 倭와의 關係, 益山 別都問題, 그리고 白江口와 周留城 위치 등이 가장 대표적인 미해결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백제사 이해의 關鍵이 되는 것으로 아직도 異說과 異見이 분분하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연구와 조명이 요구된다.

우선, 백제의 첫 서울인 慰禮城(河北·河南) 문제는 春宮里 風納里 二聖 夢村土城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장이 散見되고 있으며<sup>10)</sup>, 目支國(馬韓)에서 백제로의 이행과도 명확한 정리가 어려운 실정이

다<sup>7)</sup>. 동시에 백제 始祖 傳說이나<sup>8)</sup>, 특히 目支國의 위치문제도 혼선이 따른다<sup>9)</sup>. 그러나 「三國史記」와 「日本書紀」의 기록 차이에서 오는 王系問題는 새로운 검토의 대상이 되었다<sup>20)</sup>. 다만, 백제 지배세력의 변천에 대해서는 盧重國의 선구적 업적<sup>21)</sup> 이후, 어느 정도 연구성과의 일치를 보게 되었다<sup>22)</sup>. 그리

- 16) 李丙熹, “慰禮考”, 韓國古代史研究, 1981.  
 金廷學, “서울近郊의 百濟遺蹟”, 鄉土서울 39, 1981.  
 尹武炳, “漢江流域에 있어서의 百濟文化研究”, 제2회백제연구소국제학술대회는문집, 1974.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下)”, 韓國學報 3, 1976.  
 成周鐸, “漢江流域의 百濟初期 城址 研究”, 百濟文化 14, 1984.  
 車勇杰, “慰禮城과 漢城에 대하여”, 鄉土서울 39, 1981.  
 崔夢龍, “考古學 資料를 통해 본 百濟初期의 領域考察”,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 國史學論叢, 1985.  
 ———, “漢城時代 百濟의 都邑地와 領域”, 震檀學報 60, 1985.
- 17) 李基東, “馬韓領域에서의 百濟의 成長”, 馬韓·百濟文化 10, 198.  
 ———, “百濟 建國上の 2·3의 問題”, 百濟研究 21, 1990.  
 ———, “百濟國의 成長과 馬韓의 併合”, 百濟論叢 2, 1990.  
 李道學, “百濟의 起源과 國家發展에 關한 檢討”, 韓國學論集 19, 1991.  
 李鍾旭, “百濟의 國家形成”, 大邱史學 11, 1976.  
 金杜珍, “馬韓社會의 構造와 性格”, 馬韓·百濟文化 12, 1990.  
 權五榮, “初期百濟의 成長過程에 대한 一考察”, 韓國史論 15, 1986.  
 박찬규, “백제의 한각유역 정착과 발전”, 학술논총 15, 1992.
- 18) 盧明鎬, “百濟의 東明神話와 東明廟”, 歷史學研究, 1981, p.10.  
 이종태, “백제 시조관념과 그 변화”, 삼국시대의 시조인식과 그 변천, 국민대 학위논문, 1996.  
 金杜珍, “百濟 建國神話의 復元試論”, 國史館論叢 13, 1990.  
 ———, “百濟始祖 溫祚說話의 形成과 그 傳承”, 韓國學論叢 13, 1991.  
 車勇杰, “百濟의 祭天祀地와 政治體制의 變化”, 韓國學報 11, 1978.  
 박찬규, “백제 구이신 성립배경”, 학술논총 17, 1994.
- 19) 李丙熹, “目支國의 位置와 그 地理”, 韓國古代史研究, 1976.  
 千寬宇, “目支國考”, 韓國史研究 24, 1979.  
 金貞培, “目支國考”,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1985.  
 윤내현, “목지국과 월지국”, 차문섭회갑논총, 1989.  
 盧重國, “目支國에 대한 一考察”, 百濟論叢 2, 1990.  
 崔夢龍, “馬韓·目支國 研究의 諸問題”, 百濟論叢 2, 1990.
- 20) 李基東, “百濟王室 交代論에 대하여”, 百濟研究 13, 1982.  
 梁起錫, “百濟初期의 王位繼承과 王權의 性格”, 湖西文化研究 8, 1989.



하여 백제 정치사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큰 성과는 수도의 이동에 따른 지배세력의 변천과 정치체의 해명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기백이 왕위계승문제에 대한 선구적인 업적<sup>24)</sup>이 있는 이후 이것은 백제사 이해의 한 기준이 되었으며, 점차 백제 왕실 및 지배세력의 교대론으로 확대되었다<sup>25)</sup>.

그 결과 武寧王, 聖王, 威德王대에 백제 專制王權이 본 궤도에 오름으로서 그 정치적 특성을 조명하게 되었다. 즉, 泗沘時代가 백제왕권의 專制時

期로서 일원적 행정체제와 배타적 왕족의식으로 彌勒佛國土 理想을 나타낸 시기로 파악하였다.

동시에 백제의 중앙정치 내지는 권력구조에 있어서는 貴族會議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 있지만<sup>26)</sup>, 중앙정치조직과 지방조직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가 보인다<sup>27)</sup>. 특히 大輔 또는 左右輔의 경우, 그것은 3국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官制로서 고구려의 國相制, 신라의 上大等制의 실시와 같이 백제는 佐平制의 전단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3국간의 官制에 대한 比較史的 檢討가 없어 아쉬

李道學, “漢城末 熊津時代 百濟王系の 檢土”, 韓國史研究 45, 1984.

\_\_\_\_\_, “漢城末 熊津時代 百濟 王位繼承과 王權의 性格”, 韓國史研究 50·51, 1985.

金起燮, “漢城時代 百濟의 王系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83, 1993.

21) 盧重國, “百濟王室의 南遷과 支配勢力的 變遷” 韓國史論 4, 1978.

22) 盧重國, “解氏와 扶餘氏의 王室交替와 初期百濟의 成長”, 김철준박사회갑기념논총, 1983.

\_\_\_\_\_, “百濟 武寧王代의 執權 強化와 經濟基盤의 擴大”, 百濟文化 21, 1991.

\_\_\_\_\_, “泗沘時代 支配勢力的 變遷” 한우근박사정년기념논총, 1981.

梁起錫, “百濟 支王代의 政治의 變遷”, 湖西史學 10, 1982.

\_\_\_\_\_, “熊津時代의 百濟 支配層” 史學誌 14, 1980.

\_\_\_\_\_, “百濟 聖王代 政治 改革과 그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4, 1991.

\_\_\_\_\_, “百濟 威德王代 王權의 存在形態와 性格” 百濟研究 21, 1990.

\_\_\_\_\_, “百濟 專制王權의 確立” 百濟 專制王權 成立過程 研究, 1990.

李基白, “熊津時代 百濟의 貴族勢力”, 百濟研究 9, 1982.

남형중, “백제 동성왕대 지배세력의 동향과 왕권의 안정”, 북악사론 3, 1993.

金周成, “武王의 寺刹建立과 專制權力 強化”, 百濟 泗沘時代 政治史 研究, 1990.

23) 李基白, “百濟王位繼承考”, 歷史學報 11, 1959.

24) 李基東, “百濟王室의 交代論에 대하여”, 百濟研究 12, 1981.

盧重國, “解氏와 扶餘氏의 王室交替와 初期 百濟의 成長”, 金哲坡博士華甲論叢, 1985.

崔在錫, “百濟의 王位繼承”, 韓國學報 45, 1986.

25) 盧重國, “王室支配權의 強化와 5部體制”, 百濟政治史研究, 1988.

申澄植, “百濟 統治體制的 特質”, 百濟史, 1992.

사회과학원, 조선전사 4, 1991.



운 일이다. 다만, 이러한 정치조직의 발달에 배경이 된 사회 경제적 기반에 대해서는 史料의 부족으로 연구성과가 제한되었으나, 농업경제나 재정문제 등 새로운 모색이 나타난 것은 다행이었다<sup>27)</sup>.

끝으로 대외관계 연구는 遼西進出問題<sup>28)</sup>와 白江戰役<sup>29)</sup> 및 周留城의 위치문제가 큰 과제로 남는

다<sup>30)</sup>. 무엇보다도 중국측 문헌에 나타난 遼西進出問題는 그 구체적 사실과 유물유적의 유무를 떠나 백제인의 활발한 서해활동의 결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sup>31)</sup>. 또한 白江口戰의 문제는 그 위치와 함께 동아시아 정세와 일본군의 성격파악이 과제이며, 특히 周留城問題는 지역 이기주의에 빠질

26) 梁起錫, “韓國古代의 中央政治”, 國史館論叢 21, 1991.

李鍾旭, “百濟의 佐平” 震檀學報 45, 1978.

——, “百濟 泗沘時代의 中央 政府組織”, 百濟研究 21, 1990.

金周成, “百濟地方統治組織의 變化와 地方司會의 再編”, 國史館論叢 35, 1992.

盧重國, “高句麗 國相制(上)”, 韓國學報 16, 1979.

——, “漢城時代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變態섭박사화갑기념논총, 1985.

權五榮, “4世紀 百濟의 地方統制方式 一例”, 韓國史論 18, 1988.

金英心, “5~6세기 백제의 지방통치체제”, 韓國史論 22, 1990.

朴賢淑, “百濟初期의 地方統治體制 研究”, 百濟文化 20, 1990.

27) 梁起錫, “百濟의 稅制”, 百濟研究 18, 1987.

李道學, “百濟國의 成長과 소금 交易網의 確保”, 百濟研究 23, 1993.

李昊榮, “三國時代의 財政”, 國史館論叢 13, 1990.

朴燦圭, “百濟 前期의 經濟의 成長과 統治體制의 發達”, 史學誌 28, 1995.

전덕재, “4~6세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 역사와 현실 4, 1990.

28) 金庠基, “百濟의 遼西經略에 대하여”, 白山學報, 1967.

李明揆, “百濟 對外關係에 關한 一試論”, 史學研究 37, 1983.

方善柱, “百濟軍의 華北進出과 그 背景”, 白山學報 11, 1971.

俞元載, “僞虜의 百濟侵入記事”, 百濟研究 23, 1993.

申潑植, “百濟의 遼西進出문제”, 百濟史, 1992.

29) 변린석, “7세기 중엽 일본의 백강구전 파견의 성격”, 인문논총 2, 1991.

——, “7세기 중엽 백강구전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인문논총 4, 1993.

——, “7세기 중엽 백강구전에 참가한 일본군의 성격”, 국사관논총 52, 1994.

——, “백강구전쟁을 통해서 본 고대 한일관계의 접점”, 동양학 24, 1994.

30) 全榮來, 留城·白江位置 比定에 關한 研究, 1976.

朴成興, 洪州 周留城考, 1994.

金在棚, 百濟 周留城의 研究, 1995.

31) 申潑植, “韓國古代의 西海交涉史”, 統一新羅史研究, 1990.

염려가 있어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都守熙의 정력적인 百濟語 研究는 그 성과와 의미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III. 百濟史 研究의 課題

이상에서 백제사 연구를 문헌사학의 입장에서 일별하였다. 李丙燾와 李基白으로 이어진 문헌사학의 맥은 李基東에 의해서 백제사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도 결국은 고고학적인 발굴성과와 연결시킴으로서 盧重國의 시도 이후 崔夢龍, 權五榮, 李道學 등의 노력으로 본궤도에 올라섰다<sup>32)</sup>. 이러한 방향은 문헌한계에 부딪힌 백제사 연구에 큰 자극제가 될 것이며, 目支國의 위치, 馬韓에서 百濟로의 발전, 백제 지배 세력의 변천, 그리고 地方制度의 해명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보다 문헌과 고고학·미술사와의 적극적인 연결과 상호보완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異說의 조정과 수정에 따른 해석의 융통성 문제이다. 目支國과 백제초기 도읍지의 위치

라든가, 佐平制度의 성격과 그 실시 시기문제, 擔魯制와 方·郡 城體制에 대한 견해차이, 백제의 遼西進出問題, 그리고 益山別都와 周留城의 위치 등 다양한 견해는 백제사 해명의 큰 과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각기의 지역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러 주장자들의 공동연구와 토론을 거쳐 바람직한 결론 도출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셋째로 백제사 연구과제는 「日本書紀」와 「三國史記」사이의 연대나 내용의 현격한 차이를 극복하는 일이다. 과거 津田左右吉 등의 일본인에 의해서 주장된 「三國史記」 초기 기록의 불신은 백제사의 본질 파악을 어렵게 하였으며<sup>33)</sup>, 千寬宇의 초기 기록 복원과 李鍾旭의 치밀한 사료비판으로 어느 정도 해명되었다고 생각된다<sup>34)</sup>. 따라서 엄격한 사료고증과 고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며, 신라·고구려와의 비교를 통한 거시적 해석이 바람직하다<sup>35)</sup>. 이러한 사실은 백제의 專制王權을 신라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륵신앙이나 불교의 이해나 益山 別都의 문제 역시 麗·羅

32) 盧重國, “百濟王室의 南遷과 支配勢力의 變遷”, 韓國史論 4, 서울大學史學科, 1978.

崔夢龍·權五榮, “考古學的 資料를 통해 본 百濟初期의 領域考察”, 千寬宇先生 還曆紀念韓國史 學論叢, 1985.

崔夢龍, “馬韓·目支國研究의 諸問題”, 百濟論叢 2, 1990.

李道學, “百濟의 起源과 國家發展過程”, 百濟 執權國家 形成過程 研究, 1991.

33) 申滢植, “日本學界의 研究成果와 問題點”, 百濟史, 1992.

34)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下)”, 韓國學報 3, 1976.

李鍾旭, “百濟初期史 研究史料의 性格”, 百濟研究 17, 1986.

申滢植, “三國史記 百濟本紀의 分析”, 한우근박사정년퇴임기념사학논총, 1981.

\_\_\_\_\_, “三國史記에 나타난 百濟社會”, 百濟研究 17, 1986.

와의 관련과 비교를 통한 접근이 요청된다.

무엇보다도 백제의 정치제도는 麗·羅와도 달랐으며, 唐의 3省6部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더구나 私臣과 宰相制가 없었고, 최고관부(内外官)에 재정담당기관이 內官에 3개(穀部·内外掠部), 외관에 2개(點口部·綱部) 등 5개나 되어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으며, 內官기능의 다양화와 강화는 통일신라로 연결되어 內省(또는 궁정관부)의 바탕이 되었음을 주목할 일이다<sup>35)</sup>.

끝으로 지적될 것은 백제사 연구의 국제화 보다 우선 지역사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빈번하고도 거창한 국제학술대회는 自國史 이해의 한 방편일 수도 있으나, 그 속에서 제시된 내용은 새로운 학설의 제기가 아니라 기존 내용의 요약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선 신라와 고구려와의 비교연구와 일정한 연구자의 반복된 범주를 벗어나 한국고대사의 전체 틀속에서 공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sup>37)</sup>. 그러므로 지역사 연구 및 향토사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위주 관련연구소의 편협성을 극복해야 할 것이며, 상호·협조 보완의 공동연구가 요구된다. 동시에 문헌, 사상, 예술부분의 종합적인 접근도 백제사 연구의 또다른

과제가 되리라 여긴다.

한편 백제사 연구에 대한 지침이 될 목록은 백제문화개발연구원의 「百濟研究論著總覽」 1·2 (1982·1983)과 최근목의 문헌목록(「百濟文化」, 1973, p.6)이 있으며, 필자의 百濟史 研究 文獻目錄(「백제사」, 1992)으로 크게 보완되었다. 최근에 金東洙의 「韓國史論著分類總目錄」(혜안, 1996)이 출간되어 이 방면의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열린중남

35) 申滄植, “신라 병부령고”, 歷史學報 61, 1974.

윤철중, 한국의 시조신화, 백산자료원, 1966.

이종태, 삼국시대의 시조인식과 그 변천, 국민대 학위논문, 1996.

36) 신라의 肉典은 백제의 肉部, 藥典은 藥部, 그리고 寺典과 采典은 功德部 등으로 연결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신형식, 백제사, 1992, p.193).

37) 이기백, “백제연구의 과제”, 백제연구 15, 1984.

이기동, “백제사의 연구”, 백제연구 15, 1984.